

## 이웃사촌이 희망의 디딤돌입니다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을 훨씬 더 잘 알고, 도와 주기도 쉽다는 뜻이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이웃의 힘으로 이웃을 돕는 ‘희망 디딤돌 복지공동체’를 관할 구역의 전 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발 벗고 나서서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도움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 첫 희망의 새싹이 나다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철로변 풍경을 노래한 동요 가사는 아름답지만 막상 철길 옆에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은 그리 좋지 못한 게 현실이다. 부산광역시의 주례2동 역시 경부선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그런데 2011년 주례2동의 철길마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원래 주례2동 철길마을은 5~60년 전부터 오갈 데 없는 도시의 영세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생긴 마을이었다. 노인, 장애인 세대가 많아 오랜 세월이 흘러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근

에는 재개발을 통해 들어선 아파트단지가 있었기에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이 더욱 팽배해졌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발 벗고 나섰다. 사상구 담당자는 “철로변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던 중 인근의 아파트 단지의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우선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독려하여 주민대표 15명으로 구성된 ‘행복공간창조위원회’라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다. 대학교, 종합병원, 새마을금고, 기업체 대표, 지역 유지, 마을통장 등의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었다.

우선 사상구에서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철로변 마을을 답사했다. 실제로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약 2달 동안 밤낮으로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4개 분야에 걸친 총 167건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례2동 철길마을과 신세계 이마트 자매결연으로 비 새는 지붕 수리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다. 일단 환경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빗물이 새는 지붕이 사라지고 무너진 담장이 다시 세워졌다. 쓰레기장 같던 공동화장실은 깨끗해지고, 보수가 필요하던 곳곳의 시설들이 새것처럼 변했다. 또한 공원이 생기고 지저분하던 골목길은 포장이 되었고, 하천 정비도 이뤄졌다. 곳곳에 소박한 텃밭도 생겼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욱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 어둡고 칙칙하던 환경이 환해지자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더 제대로 해보자!”는 의욕을 보였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우리도 힘을 보태자!”며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주례2동의 변화는 더 큰 희망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다. 사상구에서는 주례2동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환경 개선 및 복지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2013년 3월 덕포2동과 엄궁동 2개 지역에 시범운영을 한 후 중간 보고회를 거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해 나갔다.

2014년 7월까지 사상구 내의 12개 동 전 지역에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자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

## 함께 나누고 서로 돕는 마을 공동체

희망디딤돌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로 이뤄진 ‘복지공동체’이다. 희망디딤돌 사업의 동력이자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복지공동체의 시작은 철저히 ‘주민으로부터’이다. 사상구에서 희망디딤돌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 동에 계획을 하달하면 동에서는 동장이 주도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는 디딤돌이웃들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벽화 그리기

나서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각 주민자치단체의 대표들과 더불어 의견을 모은다. 복지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다.

“우리 앞집에 절에 다니는 아줌마가 있는데 평소에 보면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을 아는데 생활에 여유도 있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입구 마트 옆집에 도배 장관하는 집 김씨 아저씨는 어떨까요? 그분이 성격도 좋고 마음씨도 좋아서 적합할 겁니다. 도배 장관 봉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해서 동장과 주민대표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이웃의 속사정은 이웃들이 잘 알 수 있잖아요. 마을의 환경도 개선하고 우리 자식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듯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지는 것이 복지공동체이다. 복지공동체는 다시 세 파트로 나뉜다.

첫째는 ‘디딤돌 운영위원회’이다. 동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문제들에 대

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그것을 심의·결정하는 일을 한다.

둘째는 ‘디딤돌 이웃’이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다. 직접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후원금을 내거나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는 ‘디딤돌 살피미’이다. 디딤돌 살피미는 일종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서 주변의 방치된 소외이웃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동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역할을 한다.

현재 사상구에는 12개 동에서 1,160여 명의 주민들이 복지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중에서 디딤돌 운영위원회원은 153명, 디딤돌 이웃은 397명, 디딤돌 살피미는 610명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사상구에서는 구민 스스로 만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희망디딤돌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 간 단합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주민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거점센터 설치

## 실질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대안 모색

복지공동체의 활동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그 대안 역시 실질적이다. 주민들의 공동체라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주먹구구식인 것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사상구에서는 2012년 10월에서 2014년 4월에 걸쳐 ‘민·관 합동 철길마을과 저소득밀집지역의 주민복지 및 주거환경 실태 조사’를 동별로 실시했다. 주 대상지역은 주례2동, 덕포1동, 괘법동, 학장동, 엄궁동으로서 주민 1,209세대가 참여했다. 주거 환경은 어떠한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불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활환경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 생활실태 및 복지환경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했다. 통장과 공무원이 1개 조가 되어 가가호호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층적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주민 욕구와 의견을 복지공동체에 전달하여 사업 추진 방향에 반영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해서 주민 가구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생계 지원을 한다거나 보일러 교체, 집수리 등의 생활 서비스는 물론 전반적인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광범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는 것이 사상구 담당자의 설명이다.

복지공동체에서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게 안부를 전하는 ‘까치소리사업’,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불지기 사업’, 이웃들이 이웃을 위해 결연사업을 펼치는 ‘희망굴렁쇠사업’, 이·미용봉사, 가전제품수리, 이불빨래 봉사, 밑반찬 만들어 주기, 집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식당 운영 '희망밥상'

수리 등으로 봉사하는 '재능나눔 데이' 운영,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당인 '희망밥상' 운영,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찾아 봉사하고 어려운 사정을 알아내어 도와주는 '이웃사촌 살핀 데이' 운영,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후원으로 긴급위기 가정에게 보금자리 마련해 주기 등 다양하다.

## 공포의 김길태마을이 희망디딤돌 마을로 변신!

각 동의 복지공동체 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화사업이 있는 것이다. 여러 특화사업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특화사업 중의 하나는 '디딤돌하우스'이다.

디딤돌하우스 사업이란 재개발구역에 방치된 폐·공가를 지역 공동체 재능기부자들의 기술과 주민들의 성금 모금으로 수리하여 주거 불안정가구에 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 첫 번째 추진 지역이 바로 덕포1동으로서 지난 2013년 5월 29일 덕포동에 디딤돌하우스 제1호가 개관했다. 이곳은 원래 성폭력 사건으로 전 국민

을 공포에 떨게 했던 김길태 사건이 있던 집으로서 사고 발생 후 폐가로 방치되어 왔는데, 덕포1동 복지공동체에서 디딤돌하우스 사업으로 대변신을 시킨 것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개·보수 작업으로 완전히 새롭게 단장을 함으로써 총 7가구가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바뀌었다. 임대료는 방의 크기나 가족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저렴한 금액이다.

“집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확 올려서 아이들하고 거리에 나왔게 생겼는데 디딤돌하우스에 입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단칸방에 모여 살았는데, 이제 각자 방이 생긴다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임대료도 저렴해서 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꿈만 같아요.”

디딤돌하우스에서 살게 된 주민들은 하나같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좋아했다. 이곳 디딤돌하우스 1호 주변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도서관, 동네 사랑방으로 구성된 덕포복지센터 '디딤돌'까지 건립이 되어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었다.

한때 성폭행 사건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어두운 곳으로 방치되어 있던 곳에 디딤돌하우스가 들어서자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달라진 것은 눈에 보이는 마을의 분위기만이 아니다. 어두운 상처의 기억이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비추자 사람들의 마음까지 달라졌다.

## 십시일반 힘모으면 못할 게 없다

복지공동체의 가장 큰 역할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여 돕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살피미들의 눈은 항상 주변을 향해 열려

있다. 최근 모라1동의 복지공동체에서 한 위기가정을 구제한 일이 있었다.

“저희 동네에 위기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피신해 있는 다자녀 모자가구입니다. 엄마는 부산까지 출퇴근하고 낮에는 아이들끼리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데다 7명의 가족이 사는 단칸방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 가정에게 시급히 새로운 주거가 필요한데 약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우리 동에서 모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에서 도와주십시오.”

지역 상황을 보고 받은 사상구에서는 모라1동에 있는 위기 가정을 구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네트워크 된 단체를 총동원했다. 안내 이메일



이웃을 위한 마을 합동 김장 담그기

독거노인 이삿짐 옮겨주는 디딤돌이웃들

을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부와 지원을 부탁함으로써 1박 2일 만에 1,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정폭력으로부터 피신해 있던 위기의 모자 가정은 보증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안정된 주거 공간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들끓던 단칸방에서 방 2칸,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공동체에서는 텔레비전 등의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중고이나마 기증받아 지원해 주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희망스터디 사업과 연계하여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보습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상구 푸드마켓

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상구에서는 희망디딤돌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기기부자를 발굴하고자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복지공동체의 계좌를 만들었다. 주민들이 매월 5,000원에서 1만 원씩 자동이체로 기부하는 통장으로서 기부자들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여기서 모인 성금으로 디딤돌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지역의 복지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에서는 십시일반으로 손길을 모으고 물적 자원을 모아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약한 힘이라도 여럿이 모으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당신이 우리 마을 챔피언입니다!”

“처음엔 통장님이 와서 권하니까 마지못해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재미가 붙었죠.”

“우리 마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전에는 형편만 좋아지면 이사 가야지, 했는데 이젠 이사 갈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 동네가 최고거든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고맙다고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희열이 느껴집니다. 자꾸 뭔가 더 봉사할 게 없나 찾아보게 되죠.”

복지공동체에 들어가서 마을을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기쁨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다. 사상구 사람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성경구절이 세상살이에서도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사상구에서는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각 동의 복지공동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해마다 시상식을 하고 있다. 12개 복지공동체의 1년간 사업을 총괄 보고하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심사를 거쳐 우수 복지공동체를 시상하는 것이다. 또한 활동의 중심에 선 분들은 대부분 각 지역의 통장들인데 이 분들에게 ‘통장자녀 지원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동기부여 방법은 주민들의 자긍심과 베푸는 기쁨이라고 사상구 담당자는 설명한다.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보람이 가장 큰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상구에서는 복지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와 봉사자들에게 언제나 존경을 표하며 노고를 치하해 드리려고 노력한다.

희망디딤돌 사업은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사상구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살려 나가기 위해 2015년에는 구 예산 3억 원을 희망디딤돌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디딤돌 사업은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웃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는 희망의 디딤돌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을 만들어 주는 희망의 디딤돌이기도 하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식으로 개인주의에 빠져 살아가던 현대인들이 마을의 복지공동체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지고 있다. 흩어진 모래 같던 사람들이 찰진 진흙처럼 끈끈한 정과 유대감으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Interview

부산시 사상구 /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담당자

“희망디딤돌은 언제나 현재진행형!”

Q.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성화책은 무엇입니까?

A.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그분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식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전 동의 복지공동체가 생겼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요?

A. 희망디딤돌 사업은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언제나 ing의 현재진행형 사업입니다. 첫 사업 추진지역인 주례2동의 희망디딤돌 사업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가 늘 생길 뿐만 아니라, 나은 환경, 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션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 희망디딤돌 사업에 사상구청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A. 사상구는 전체 12개 동의 복지공동체를 모니터링하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면 지원해 줍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복지공동체가 주체이지요. 희망디딤돌 사업은 민관이 함께 도우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적인 민관파트너십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희망디딤돌 사업이 다른 복지 사업에 비해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A. 주민들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사정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니까요. 관의 눈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실상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 등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들이 나서서 도움으로써 단순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적 유대감을 살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살던 고향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그야말로 이웃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